

18·19세기 歌辭에 나타난 關北民의 삶 - 〈甲民歌〉와 〈북시곡〉을 중심으로 -

이 동 찬*

차 례

- | | |
|-----------------------------|---------------------------|
| 1. 들머리 | 1) 세계의 폭력성과 流亡 |
| 2. 절대 궁핍과 관북민의 삶에 대한 형상 | 2) 관념적 유토피아와 善治者 출현의 기대 |
| 1) 척박한 지리적 환경과 艱苦한 삶의 표현 | 3) 역사현실과 지식인의 유민의식 |
| 2) 수취제도의 모순과 삶의 갈등에 대한 시각 | 4. 관북 체험의 서술방식과 가사문학사적 자리 |
| 3. 관북민의 유토피아 갈망과 지식인의 유민 의식 | 매김 |
| | 5. 마무리 |

1. 들머리

18·19세기는 신분제의 붕괴·상공업의 발달과 화폐경제의 활성화·도회지의 형성·실학의 등장·민중문화의 발달 등으로 조선 봉건사회가 해체되면서 민중의 삶이 중세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농업생산력과 사회적 분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성장의 결과를 둘러싸고 국가와 농민, 지주와 빈농, 고용주와 임노동자, 상인과 소비자간에 계층 갈등이 시작되면서 계급분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또한 고질적인 세도정치의 폐단에

* 경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다 삼정의 문란 등으로 각종 조세부담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적극적인 방안으로 민란과 같은 집단적인 행동을 통하여 지배층의 가렴주구로부터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 유망을 통해 부세의 수탈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등 민중의 생활은 고통과 궁핍함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 시기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집권층의 각종 수탈행위가 조선팔도 어디에든 없었겠느냐마는 관북지방은 가장 폐해가 심한 곳 중의 하나였다. 이 글은 지리상 가장 험난하고 거친 땅으로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어 항상 차별 받고 지방관의 수탈로 인해 어렵게 살아가는 관북민의 삶을 형상화한 가사문학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靑城公 成大中(1732~1812)이 北靑府使로 재직하던 1792년 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시대의 역사적 실상과 갑산민들의 삶의 모습에 주목한 <甲民歌>¹⁾와 具康(1757~1832)이 1812년(순조 12년) 9월에 관북 암행어사의 특명을 받고 6개월 동안 甲山 → 北靑 → 明川 등으로 이어지는 관북지방 일원을 사찰하면서 겪은 갖가지 체험과 모순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피폐한 일상과 관북지방의 기이한 풍속 및 사적에 대한 답사와 회고 등을 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한 <북시곡>²⁾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몇 가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관북지방은 1712년 白頭山定界碑가 세워진 뒤에야 국가의 정책이 미치

- 1) <갑민가>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李相寶 校註, 「甲民歌」, 『現代文學』 143, 1966년 11월호; 金文基, 『庶民歌辭研究』, 螢雪出版社, 1983; 고순희, 「甲民歌의 작가의식—대화체와 생애수용의 의미를 중심으로」, 『梨花語文論集』 제10집, 1988; 高淳姬, 「19세기 현실비판가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김일렬, 「甲民歌의 성격과 가치」,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金瑯鏞, 「甲民歌의 주제에 대한 再檢討」, 『어문논집』 제33집, 고려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1994. 텍스트는 林基中 編, 『歷代歌辭文學全集』 6, 東西文化社, 1987에 영인되어 있는 해동가곡본을 이용하였다. 이하 인용은 그 면수만을 기재한다.
- 2) <북시곡>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徐奉植, 「北塞曲」, 『鄉土研究』 제10집, 忠南鄉土研究會, 1991; 姜銓燮, 「南湖 具康의 北塞曲에 대하여」, 『韓國學報』 제69집, 1992년 겨울호; 朴堯順, 『韓國古典文學 新資料 研究』, 漢南大出版部, 1992; 崔康賢, 「기행가사 北塞曲을 살핌」, 『근재양순필박사화갑기념 어문학논총』, 학문사, 1993; 이형대, 「北塞曲의 표현방식과 작품세계」,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텍스트는 徐奉植에 의해 『鄉土研究』 제10집, 忠南鄉土研究會, 1991에 소개·영인된 것을 이용하였다. 이하 인용은 그 면수만을 기재한다.

기 시작했고 그 중요성이 대두되어 지식인들에 의해 이 지역의 역사와 산천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그 중 <갑민가>와 <북식곡>은 관북지역의 척박한 지리적 환경으로 불리한 생산조건과 그 위에 가중되는 수취제도의 모순과 운영의 부조리로 간고한 생활을 하는 관북민에 대해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18·19세기 관북민들이 지배층의 잔혹한 수탈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流亡의 길이 어떻게 표현되며, 또 이들 流民들이 지향하는 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갑민가>와 <북식곡>을 중심으로 유민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지식인들이 지닌 현실 대응 방식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셋째, 관북 체험으로 구성된 서술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서술방식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18·19세기 관북민들의 삶을 형상화한 <갑민가>와 <북식곡>의 가사문학사적 자리매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무엇보다 유민문제가 가사문학 담당층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가사문학의 주요한 제재로 반영되었다는 규명과 아울러 18·19세기 가사문학사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절대 궁핍과 관북민의 삶에 대한 형상

1) 척박한 지리적 환경과 艱苦한 삶의 표현

일찍이 靑華山人 李重煥(1690~1752)은 “함흥 이북은 산천이 험악하고 풍속이 사나우며 기후가 춥고 토지도 메말라 곡식은 조와 보리뿐이며, 벼는 적고 면화는 없다. 이 지역 사람들은 개가죽을 입어 추위를 막으며 굶주림을 견디는 것이 여진족과 같다. 그리고 산에는 貂皮와 人蔘이 많이 나는데, 백성은 초피와 인삼으로써 남쪽 장사꾼의 무명을 바꾸어야만 비로소 바지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살림이 넉넉한 자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함경도의 풍토를 평하였다. 태조 이성계의 발원처이기도 한 이곳은 조선전국에 기여한 맹장들을 다수 배출하였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이후로는 등용이 제한되었으며, 이것이 관

습화됨으로써 후대에는 이 지역에는 사대부가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중환은 “서북은 살만한 곳이 못된다”고 단언하였다.³⁾ 이처럼 관북지방은 거친 풍토와 조정의 차별대우로 인해 1712년 백두산정계 이전까지는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곳의 산천은 남도와 달리 거칠고 드센 웅기를 갖추고 있었으며, 풍속은 조정의 경시로 인해 오히려 야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1) 보기 슬타 너해집은 녹간 칠간 훈 기리로
되논 디로 지었시니 경조간이 기뵈더라
그 안의 무엇 무엇 훈가지로 잇듯던고
소와 돛과 기 돛 증심 사툼과 셋겨 조대 (171)

(2) 바다히 팔구뵈니 소곰 어더 먹울소냐
나무독의 갖침치는 짠 것 업시 담았거니
식뵈고 승거운 맛 진짓 그 밥 반찬일네
기름을 맛보란들 참씨들씨 이슬소냐
불켜논양 가이업다 익기나무 웅도리나
훈발되는 결읍디의 좁쌀 쓰물 무쳐 말너
쇠테 훈 정썩목의 열업시 가로 질너
덧업시 타는 동안 반반시도 못되더라
조희가 지귀하니 창 바른 조희 보소
붓업질 없게 이러 더덕귀로 붓쳤시니
바름은 막으려니 벗치야 보울소냐 (170)

⋮

오조와 귀우리는 겨우 겨우 먹거니와
넙쌀의 팻 둔 밥은 중신토록 맛볼소냐
삼빤는 잇거니와 목면 보기 쉽지 안타
갓 샷갓 쓰랴 하니 디와 갈 이슬소냐
도리 좁은 노병거지 성긋 성긋 걸어 뻗데
기가족 긴돌지는 팔즈 조하 어더 넘고
큰 녹피 원통바지 호스 맞치 겨우 입고
빈즈는 보션 벗고 겹고 낡은 뵈져고리
삼동이 다 진토록 버슬 줄 모로더라 (171~172)

(3) 기싱들의 간난보소 보병치마 즐너넘고
만호 권관 비러가면 남병스의 첩이 된 듯

3) 李重煥 著/李翼成 譯, 『擇里志』 「八道總論」 「咸境道」, 乙酉文化社, 1971, 48~54쪽.

깃버흐기 측량업니 그 무슴 영화되리
 불면 나는 미조밭도 변변이 못 먹거니
 그 무어시 깃부판디 조청하야 가려논고
 혼 계집이 서너 셔방 응당으로 아는 풍속 (174)

위 인용은 <복식곡>으로 관북지역의 의식주를 묘사한 부분이다. (1)에서는 긴 너와집 속의 부엌에서 사람과 짐승이 함께 자는 기이한 주거양식으로 매서운 겨울 추위를 대비한 관북지역 특유의 생활양식임을 알 수 있다. (2)에서는 오지라 소금도 먹을 수 없고 밤에 불을 밝힐 형편도 되지 못할뿐더러 문도 바르지 못하고 사는 열악한 환경과 함께 벼가 적어 조·귀밀·기장과 산나물 등을 주식으로 하며, 여름에는 삼베옷을 입을 수 있으나 면화가 없어 겨울에는 개가죽이나 사슴가죽을 재료로 하여 만든 옷을 입을 만큼 생리가 저급하였던 생활상을 자세히 알리고 있다. (3)에서는 절조가 없는 기생들의 풍기와 그것을 묵인하는 남정네들의 생활상 등에 대한 서술로 산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토속적인 모습을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다.⁴⁾ 특히 관북민의 일상적 삶의 형상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타지역 농민들의 생활과는 다소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

4) 숙종대 兪榮(1607~1664)는 북쪽 변방지역 민중들의 服色과 생활상에 대해서, “북쪽에 사는 남자들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개가죽으로 만든 윗도리와 바지 한 벌뿐이다. 부인들은 겹옷은 없이 여기저기를 기운 헤진 형것으로 몸을 가린다. 위아래를 한 통으로 이어서 윗저고리와 치마의 구별이 없으며, 속바지도 버선도 입지 않는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모두들 몸을 움츠리고 토실로 들어가 사는 데, 떡갈나무와 졸참나무 낙엽으로 솜을 대신하고 지붕과 벽은 잠방이로 만들었으며 개를 보듬고서 몸을 녹인다. 눈을 녹여서 물기는 것을 대신하고 오직 변소에 갈 때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다. 그러므로 북민들은 딸을 낳으면 良賤을 막론하고 娼妓의 일을 가르쳐서 요행히 남쪽에서 온 손님을 맞아서 머리 꾸미개나 衣裳을 얻게 되면 온 마을이 떠들면서 서로 축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兪榮, 『市南集』 卷14, 『邊娼』,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117, 216~217쪽). 耳溪 洪良浩도 <赤狗皮>에서 “개가죽으로는 갓저고리 해 입고 赤狗皮身掛 / 소가죽으로는 신을 지어 신네 生牛革足穿 / 갓저고리 계절이 따로 없고 皮衣冬夏皆宜 / 가죽신 물과 육지 상관없지요 革襪水陸俱便.”(洪良浩, 『耳溪集』, <赤狗皮>, 『耳溪洪良浩全書』, 民族文化社, 1982, 22~23쪽)라고 관북민들의 저급하고 열악한 생활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4)七八月の 採蔘하고 九十月의 狍皮 잡아
 公債 身役 잡흔 후의 그 남저지 두엇드?
 咸興 北靑 洪原 장스 도라드러 潛賣할 제
 厚價 받고 파르니여 살기 도흔 너른 곳의
 家畬 田土 곳처 스고 家庄汁物 장몬호여
 父母 妻子 保全하고 새 즐거를 누리려문 (6)

위 인용 (4)는 농토가 적고 농업생산력이 미약한 험한 고산지대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관북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형상화한 <갑민가>의 한 부분이다. 관북민들은 농사를 짓는 여가에 채삼과 돈피사냥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축적된 재산으로 ‘家畬 田土와 家庄汁物’을 마련하여 “父母 妻子 保全”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취제도 등 구조적 모순의 폐해가 전제되지 않은 일상적 삶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 (5) 디방은 편협하고 흉년들면 죽을 데라
 닌움이 머릿시니 곡식 슈운 어이호리
 이순만의 갑산 오니 폐막도 만홀시고
 구환은 구산 갓고 녹용 진상 어렵더라
 촌민의 심의들은 무어스로 호듯던고
 돈서를 사녕호여 먹은 환즈 바치려니
 몫술 관당 오게 되면 늑민 늑탈 호논고나
 이 썸만 그러호가 녹용도 돈피로다 (173~174)

위 인용 (5)는 관북지역의 척박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불리한 생산조건과 그 위에 가중되는 제도적 수탈로 고난받는 관북민들의 애환을 표출하고 있는 <북시곡>의 한 부분이다. 토지나 기후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이 지역의 농업 생산력은 미미하기 짝이 없고, 흉년이라도 들라치면 궁벽하고 험한 지형으로 인해 곡식 조달마저 용이하지 않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살림터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관북민들의 삶의 질곡은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보다는 인위적 제도와 그것의 파행적 운영에서 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즉 현실 생활을

5) 이형대, 앞의 글, 252~253쪽 참조.

고단하게 하는 척박한 지리적 환경보다 수취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최소한의 생존여건마저 박탈당한 절박한 삶의 실상이 더한 문제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2) 수취제도의 모순과 삶의 갈등에 대한 시각

18세기이래 문란한 조세제도는 힘없는 민중들에게 이중 삼중의 군역과 환곡을 중첩시켰다. 그 결과 민중들은 부당한 현실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본거지로부터의 유망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들의 유망은 疊徵·族徵 등에 의해 남아있는 族人들과 이웃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어, 대량의 유민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북쪽의 변방 관북 지방이 가장 피해가 심한 곳 중의 하나였다.

18세기 후반 함경도 ‘갑산’의 지역민이 집권층의 수탈에 희생되는 참혹한 정상과 삶의 질곡을 형상화한 <갑민가>의 중심화자인 갑산민은 본래 ‘南中 兩班’이었으나 자신의 조상이 “猜忌人의 참소”로 國內 極邊지역인 갑산으로 밀려나온 이래 대대로 ‘座首 別監 風憲 監官 有司 掌儀’ 등 邑中 구실아치를 맡을 정도로 세력이 있었으나, 자신의 대에 이르러 “怨讐人의 謀害로서 軍士 降定” 되어 “數多 一家 次次 充軍”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다.⁶⁾ 이러한 몰락의 결과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 군역의 부담이었고, 족인들의 도망으로 12인분의 족정을 포함해 13인의 군역을 혼자 감당하게 된 사정을 아래의 인용 (6)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6) 累代奉祀 이 너 몸은 홀 일 업시 밋와 잇고
 시름 업슨 諸族人은 조취 업시 逃亡호고
 여러 슝 몸도 身役 내 호 몸의 모도 무니
 호 몸 身役 三兩五錢 狗皮二張 依法이라
 十二人名 업는 구실 습치 보면 四十六兩
 年復年의 맛티 무니 石崇인들 當홀소나 (8)

6) 이는 아마도 당쟁에 희생되어 내쳐진 뒤 점차 향촌사회의 지배세력에서도 소외되어 군역을 부담해야 하는 일반서민으로까지 전락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諸族人들의 신역까지 “年復年の 맛트” 물었던 중심화자인 갑산민은 일반 농민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던 계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 갑산민과 같이 어느 정도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三兩五錢 狍皮二張’의 신역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疊徵·族徵 등에 의한 13인의 신역을 혼자서 떠맡아 해결하여야 하는 과도한 수탈구조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에 갑산민은 자신의 삶의 근거지인 고향의 토지로부터 유망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갑산민처럼 일정 정도의 경제력을 지녔던 계층이 수취제도를 견딜 수 없었다면 근근히 살아가야 했던 대다수 관북민들에게는 엄청난 질곡으로 작용하였음을 어렵사리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수탈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는 자신의 현거주지에서 이탈 유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갑산민을 고향으로부터 이탈하여 유망하게 한 원인은 당대의 첩정·족징 등 수취체제의 모순에 의한 수탈이라는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에 기인한 참혹하고 암담한 현실이 민중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 (7) 田土 家庄 盡賣호여 四十六兩 돈 ㄹ디고
 痍記所 츠즈가니 中軍 把摠 號令호되
 우리 使道 分부 內의 各 哨軍의 諸身役을 狍皮 外에 보타 물라
 官령 如此 至嚴호니 호릴 업서 퇴호호드
 돈 ㄹ디고 물너는와 原情 디어 발팔호니
 勿위 煩訴 題辭호고 軍奴 將校 差使 노아 星火 ㄹ티 지촉호니
 老父母의 遠行治裝 八昇네匹 두엇더니
 八兩 돈을 비러 보고 파라다가 치와 니니 五十餘兩 되거고야
 三水各鎮 두로 도라 二十六張 狍皮 스니 十餘日 將近이라
 星火 ㄹ듯 官家 分付 次知 즈브 ㄹ도왔니
 불상홀스 病든 妻는 囹圄 中の 더디여서 結項致死 호단 말ㄹ
 니 집 門前 도라드니 어미 불너 우는 소리 九天의 스뭇호고
 의디 업슨 老父母는 不省人事 누어시니 氣絶호은 時시로드
 여러 身役 밧친 후의 屍體 츠즈 장스호고
 ∴
 나도 쏘호 이 말 듯고 우리 고을 軍丁 身役

7) 金墉鑽, 앞의 글, 331쪽.

北靑 一例 ㅎ여디라 營門 議送 ㄹ톤 말가
 本邑 ㅁ거 題辭 ㅁ다 本 官衙의 ㅁ치은 즉
 不問是非 ㄹ여 ㅁ고 刑問 一次 ㅁ든 말ㄷ (11~12)

위 인용 (7)은 온갖 노력에도 납부할 세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전토와 가장을 모두 다 팔아 마련한 돈을 가지고 신역을 치르러 갔으나, “各 哨軍의 諸身役을 狍皮 外에 ㅁ디 ㅁ라”는 부당한 “使道 分부”에 물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의 행위는 징세의 실질적인 목적이 사리사욕의 충족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후기 민중들에게 부과되었던 중층적 수탈구조를 확인하게 된다. 갑산민은 이에 불복하여 합법적 수단인 議送을 관아에 두 차례나 올려 그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첫번째는 ‘번잡한 訴狀을 ㄹ리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도리어 군사를 보내어 세금을 독촉한다. 두번째는 인근 고을 복청은 부사의 선정으로 대소민호가 신역을 분담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덜게 해준다는 소식을 들은 갑산민이 복청과 같이 제도를 고치고자 갑산영문에 의송을 올렸지만 조사는커녕 “不問是非 ㄹ여 ㅁ고 刑問 一次”에만 ㅁ고 ㅁ신ㅁ고 ㅁ에 ㅁ러난다.

이같은 집권층에 의한 수탈의 잔혹성과 수취제도의 문란상은 갑산민의 비극을 여기에서 끝나도록 하지 않는다. 노부모의 遠行治裝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벼 8승 4필을 팔아 자지를 해매면서 돈피를 사오는 동안 관가에서 병든 아내를 잡아 가두어 결국 아내는 結項致死하게 되고, 노부모는 기절하여 인사불성이 되어 누워있게 된다. 이 부분에 이르러 갑산민의 형상은 더욱 비극적인 의미로 다가온다. 이처럼 <갑민가>에서 아내가 結項致死하고 마는 사실은 <居昌歌>에서 寓居兩班 김광일에게 부과된 價布인 選武布를 강제로 수거하기 위해 面任이 내정까지 돌입하여 그 부인의 머리채를 ㄹ야채며 온갖 욕설을 늘어놓자, 그 여인이 그런 逢辱에 항거하여 자결한 사건과 會哭과 鄉會 거사의 주도자로 잡힌 이우석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보기 싫어 먼저 결항치사한 사건, <合江亭歌>에서 부엌에서 우는 여인의 사연을 묘사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⁸⁾ 이러한 사실은 갑산민 개인이 당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불행이지만 다른

8) <갑민가>와 <거창가> 등의 結項致死 사건은 힘없는 여성들의 희생을 들어 당시의 수탈상을 극대화시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高淳姬, 앞의 글, 1990; 李東

작품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서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당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었던 갈등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민중의 갈등 현실은 작자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사건들로써 전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들이 모여서 당대 민중의 집단적인 현상을 이룬다 하겠다.

<부식곡>이 지어진 19세기 전반에는 이미 환곡은 중앙정부의 재정원으로서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그 분급량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폐경제 및 금납화의 경향에 편승한 作錢代捧制도 문란하기 짝이 없었다. 갑산을 비롯한 관북지방의 백성들이 겪는 수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인용 (5)에서 보았듯이 이미 산처럼 쌓인 환자를 갚기 위해 돈피사냥에 힘쓰지만, 탐욕한 수령들에 의해 강매되거나 강탈당하여 그것마저 용이하지 않은 고단한 현실을 비교적 상세하고 사실적이며 평진하게 묘사되어 있어 주목된다. 특히 구강이 관북지방의 읍폐와 민박을 살피고 나서 보고한 『書啓別單』의 첫머리에 “糶糶의 폐단은 팔도에서 일반적인 폐해이기는 하지만 관북처럼 극심한 곳은 없습니다”⁹⁾라고 기록할 만큼 이 지역에서의 환곡 운영은 민중의 삶을 뿌리 채 뽑아내는 수탈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居處 好否 다 떨치고 모든 가속 안보하고 身役 업슨 軍士”(6)를 희망하면서 마침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것은 최후 수단으로서의 필연적인 귀결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관북지역이라는 척박한 지리적 환경에다 수취제도의 모순에서 오는 갈등과 좌절을 극복하고 미약하나마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려는 의지의 표출이라 하겠다.

燦, 「朝鮮後期 歌辭에 나타난 收奪 現實의 告發과 變革意志」, 『國學論叢』 제6집, 경산대 국학연구원, 2001 참조). 이는 당시 가난한 일반 여성들이 서리층으로부터 당한 수모는 말할 것도 없는데 하물며 하층빈민들에게 있어서는 말해 무엇하겠느냐는 심리적 기반에 편승하여 사회병리현상으로 널리 문제시되었던 사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9) 『日省錄』 324冊, 순조 13년 3월 上, 889쪽, 「咸鏡北道暗行御史具康進書啓別單」, “糶糶之弊 八路通患 未有若關北之甚.”

3. 관북민의 유토피아 갈망과 지식인의 유민의식

1) 세계의 폭력성과 流亡

척박한 지리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미미한 생산력에다 수취제도의 모순과 운영의 부조리 등 체제의 내적인 모순까지 겹친 현실적 제반상황은 생존 자체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농민들은 더 이상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 땅에 살 수 없었다. 이제 이들에게 놓여진 생활공간으로서의 고향은 지옥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탈출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流亡의 길이었다.¹⁰⁾ 특히 거친 풍토와 중앙정부의 차별대우 및 변방지역에 대한 통치력의 누수를 틈탄 수령 이서배들의 기생적인 수탈구조로 인해 관북지방의 백성들은 체념적 절망에 빠져 정처 없이 유랑을 하거나, 善政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었다.

<갑민가>는 주인공격인 갑산민과 역시 갑산에 산다는 생원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작품은 유망하는 갑산민에게 어렵더라도 '네 스던 곳'에 살라는 생원의 말과, 이에 갑산에 그대로 머물러 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유망할 수밖에 없다는 기막힌 상황을 제시하는 갑산민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8) 어져어져 저귀 가는 저 스편은

네 行色 보아니 軍士逃亡 네로고나

腰上으로 불죽시면 晝적숨이 깃든 남고

허리 아리 구버보니 현 줄방이 노닥노닥

10)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집권층의 각종 수탈 현실에 대응하여 개인적 차원의 抗租·유리·도망·呈訴 형태의 소극적 저항행위와 집단적 차원에서의 詭言·山呼·擧火·掛書·等訴 및 里會·洞會·鄉會 등 합법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反官鬭爭으로서의 집단적 저항행위가 공공연하게 전개되어 관주도의 향촌통제책을 위기로 몰고 갔다(망원한국사연구실 19세기 농민항쟁분과, 『1862년 농민항쟁-중세말기 전국 농민들의 반봉건투쟁』, 동녘, 1988, 15~22쪽 참조). 이러한 모순된 현실과 그에 따른 비리 및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폭로와 저항, 그리고 세계의 폭력성에 의해 꺾여버린 현실 변혁적·실천적 삶의 한계를 담지하고 있는 일련의 가사문학에 대한 논의는 李東燦, 앞의 글 참조.

곱장할미 압회 가고 전터밭이 뒤에 간드
 十里 길을 할너 가니 몇 니 가서 업쳐디리
 내 고을의 兩班 사름 他道 他官 온겨 살면 賤이 되기 상스여든
 本土 軍丁 슬타하고 즈니 쏘흔 逃亡호면
 一國一土 호 人心의 根本 숨겨 살너 호들 어디간들 면홀손가
 츠라리 네 스던 곳의 아모케나 썰회박여
 ∴
 어와 生員인디 哨官인지
 그디 말슴 그만두고 이너 말슴 드러보소 이너 쏘흔 甲民이라
 이 짜의셔 生長호니 이 썩 일을 모를소냐 (5~7)

위 인용 (8)은 생원이 갑산민의 행색을 묘사하면서, 유망하지 말고 고향에서 살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軍士逃亡’하는 갑산민의 누추한 행색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묘사를 통해 그렇게 영락하게 된 갑산민의 생애를 유도해 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갑산민의 행색 묘사는 바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유망하던 당대 유민 일반의 형상에 다름 아니다. 생원은 또한 타도 타관으로의 유망이 본토에서 그럭저럭 지내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면서, 평범한 일상인의 삶을 살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유망의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소극적인 안정 추구자의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후반부의 답변에서 갑산민이 유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능도 하고 있다. ‘내 고을의 兩班’도 타도 타관으로 옮겨 살면 賤하게 되기 십상인데, ‘즈니’와 같은 일반 농민이 어떻게 그것을 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생원은 갑산민의 유망이 군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츠라리 네 스던 곳”에 “아모케나 썰회박혀”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유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취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 당대 집권층 내지는 향촌사회 중소지주층의 논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갑산민은 생원이 “이 썩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한 언술로 치부하고, 자신이 유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논리적·적극적으로 그 행위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9) 약간 농스 全廢호고 採蓼호려 入山호여
 虛項嶺 寶泰山을 들고 돌아 츠즈보니
 人蓼 싹슨 전혀 업고 五加답히 날 소긴다
 홀릴업서 空返호여 八九月 苦楸바람 안고 도라

入山호여 狍皮山行하라 호고 白頭山 등의 디고
 分界江下 내려가서 살이 쪼겨 누디치고
 익갈나무 우등 높고 호느님게 축수호며
 山神임게 발원호여 물치출을 𠄎초곳고
 스망일기 원망호되 니 精誠이 不及호디
 스망실이 아니붓니 빈손으로 도라서니
 三池淵이 잘참이라 立冬지는 三日後의
 一夜雪이 스몏오니 대즈김회 호마너머
 四五步을 못음길터 糧盡호고 衣薄호니
 압회 근심 다 썰티고 목숨 슬려 육십호여
 至死爲限 길을 허여 人家處를 츠즈오니
 汲川巨里 첫목이라 鷄初鳴이 이윽호고
 人家寂寂 호즘일네 집을 츠즈 드러가니
 魂飛魄散 半주검이 言不出口 너머지니
 더운 구들 아로목의 송장갓치 누엇드
 人事收拾호은 후의 두 발 𠄎홀 구버보니
 열그락이 간디업니 艱辛調理 生命호여
 쇠게 실려 도라오니 八十當年 우리 노모
 마도늬와 일던 몰숨 스르왔드 니 즈식아
 스망업시 도라온들 모든 身役 격덩하라 (8~12)

인용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산민은 자신의 생업인 “약간 농스 全廢호고 採蓼호려 入山”하였다가 실패하고, 백두산에 돈피사냥을 갔다가 폭설을 만나 목숨만 겨우 구하였으며 등상에 걸려 열 발가락을 잃고 소등에 실려 돌아오게 된다. 채삼과 돈피사냥의 수확이 전혀 없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니 精誠이 不及”한 탓으로 돌리는 갑산민의 태도는 다소 체념적이기까지 하다. 아울러 비록 족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부과된 신역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갑산민의 형상을 통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당대 민중들의 건강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부과되었던 조세 등 각종 수탈을 해결할 수 없었으며, 어떠한 대안도 마련할 수 없었으니, 18·19세기 관북민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이 이를 통해서 사실적이고 뾰뚱하게 묘사되고 있다 하겠다.

(10) 三水各嶺 두로 도라 二十六張 狍皮 스니 十餘日 將近이라
 星火 𠄎뵈 官家 分付 次知 즈브 𠄎도왔니

불상홀스 病든 妻는 囹圄 中の 더디여서 結項致死 韓단 말ᄃ
 니 집 門前 도라드니 어미 불너 우는 소리 九天의 스뭇호고
 의디 업슨 老父母는 不省人事 누어시니 氣絶호은 ㅅ시로든
 여러 身役 ㅅ친 후의 屍體 츠즈 장스호고
 祠廟 피서 ㅅ회 못고 이 ㅅ토투록 痛哭호니
 無知微物 ㅅ 鳥雀이 저도 ㅅ호 설니 운다
 막중 邊地 우리 人生 나르 ㅅ성 되어나서
 軍士 슬ㅅ 逃亡호면 化外民이 되려니와
 호 몸의 여러 身役 무드가 호세 업서
 또 금년니 도르오니 流離無定 호노리라 (12~13)

인용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목도한 갑산민은 결국 자신도 끝내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祠廟마저 땅에 묻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실적 삶의 근거를 상실한 당대 민중들의 형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과도한 징세로 이웃들이 하나 둘씩 고향을 떠나고 累代奉祀로 어쩔 수 없이 묶여 있던 이웃들조차 첩징·족징과 억압을 감당할 수 없어 ‘流離無定’하는 현상은 관북지방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피해상과 거기서 오는 위기의식이 극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갑산민의 입장에서는 수탈의 잔혹성에 견디다 못해 유망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술자는 갑산민과 생원의 대화를 무엇보다도 굳더더기 없이 빠른 호흡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갑산민의 일생에서 ‘폭설-아내의 죽음-유망’ 등으로 이어지는 광폭한 세계의 폭력성을 형상화하기에 매우 유용한 수법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독자에게 설새없이 세계의 폭력을 맛보게 함으로써 결국 갑산민의 일생이 가진, 세계가 존재를 압박해 가는 과정과 그에 기반한 비극성을 깊이 이해하게 한다.

2) 관념적 유토피아와 善治者 출현의 기대

牧民官이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백성들의 삶을 이해함은 물론 이들을 구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수탈이 더욱 강화되고, 구휼이 도외시됨

으로써 백성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게 되어 결국 굶어 죽거나 유민화되었다. 아래 인용 (11)는 이를 극명하게 대변해 준다.

- (11) 들지 념을 올라서서 고을 디경 바라보니
 열 집의 널곰 집은 쾩그러니 뷔엿더라
 읍등으로 드러가니 남은 집의 곡성이라
 전년의 이천여 호 금년의 칠빅 호라
 미혹흔 뉴부스와 답답흔 니도호는
 국곡도 증커니와 인명인들 아니불가
 빅성 업는 곡식 바다 그 무어세 브라호노 (168)

유민이 떠나왔던 장진 고을은 수탈의 잔혹성으로 “열 집의 널곰 집은 쾩그러니 뷔엿”을 정도로 空洞化되다시피 하였다. 결국 농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인 고향을 등지고 유망하면서 이전 농사지를 때보다 더욱 궁핍한 생활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오히려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학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심적 고통은 전보다 훨씬 줄어든다. 그리고 아직 유망하지 않은 “남은 집의 곡성이” 나고 “전년의 이천여 호 금년의 칠빅 호”만 남은 현실인데도 “미혹흔 뉴부스와 답답흔 니도호”는 국곡의 소중함만 알고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휼하지 않는다. 이를 목격한 구강은 “빅성 업는 곡식 바다 그 무어세 브라호노”하면서 목민관을 힐책하고 구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서술자는 선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의 부재를 비판함과 동시에 수탈은 강화되고 구휼은 도외시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 (12) 그더 쏘흔 니 말 듯소 他官 消息 드러보게
 北靑府使 穢실런고 姓名은 중간 이지 잇니
 許多 軍丁 安保호고 白骨逃亡 解怨일러
 各隊 哨官 諸 身役을 大小民戶 分徵하니
 만흐면 닷돈 푼수 저그머는 서돈이라
 隣邑 百姓 이 말 듯고 남負女戴 모다 드니
 軍丁 虛伍 업서지고 民戶 漸漸 느러간다
 ∴
 千辛萬苦 노녀 느셔 故鄉 生涯 다 찢치고
 넉리 親舊 호직 업시 扶老 携幼子 夜半의
 厚峙嶺路 빗겨 두고 金昌嶺을 허위 너머

端川 싸을 바라 지나 屋岱山을 너머 서면 北靑 사이이 그 아닌가
 居處 好否 다 썰치고 모든 가속 안보하고 身役 업슨 軍士 되세
 니 곳 身役 이리하면 離親棄墓 호울소냐 (13~16)

인용 (12)에서는 군정으로 인해 유망할 수밖에 없는 갑산민의 처지에서 “軍丁 安保하고 白骨逃亡 解怨”해 주는 선치자의 존재는 현실에 닥친 모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평한 과세는 선정을 행하는 목민관의 출현에 의해 가능하고, 이는 갑산민이 자신의 고을에도 복청부사를 빌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갑산민은 대소민호에게 공평하게 신역을 분담하여 고통을 덜어 준 이웃 고을 복청부사의 선정을 하나의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취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겨 ‘隣邑 百姓이 男負女戴’ 복청으로 모여들게 된다. 그러므로 복청부사의 선정은 갑산민과 같이 지방관에 의해 수탈을 당하는 계층에게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갑산민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삶은 모든 가속을 안보할 수 있으며, 신역이 없고 ‘離親棄墓’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이다. 이러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삶의 공간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생원에게 “그더 또한 明年 잇씨 妻子 同生 거느리고”(16) 자신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이처럼 갑산민은 유망의 필연성과 유망해 가는 곳이 복청임을 밝히고 그곳에서 남세를 공언함으로써 유망행위의 정당성을 아울러 말하고 있다.¹¹⁾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유토피아’의 문제이다. 유토피아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꿈이 실현되는,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제거되어 욕망과 그 성취 사이에 그 어떤 긴장과 대립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곳’이

11) 高淳姬, 앞의 글(1990), 34쪽. 金鏞鑣은 앞의 글에서 <갑민가>는 “후반부에 제시된 갑산민의 대안은 결코 ‘遊離無定’이 아니라 ‘당대 기층민이 처했던 곤궁한 현실과 그것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복청으로의 移住’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유리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지적은 일면적 타당성만을 획득한다고 여겨진다”고 하였다(金鏞鑣, 앞의 글, 321쪽). 그러나 이때 移住는 관의 허가를 받아서 거주지를 옮기는 移來移居도 아니며, 또한 일정한 목적 아래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徙民도 아니다. 갑산민의 복청으로의 이주는 現居地에서 불법적으로 이탈하여 국가의 파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에서 ‘流亡’이라 하겠다.

다.¹²⁾ 다시 말해 유토피아는 좀더 나은 다른 곳을 향한 출발이며, 사회 자신의 불행을 떨쳐 버린 對項社會 contre-société이다. 그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현재의 위급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이상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회라는 발전기에 필요한 연료로 나타난다.¹³⁾ 즉 배산임수하고 재난을 피할 수 있으며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살기 좋은 ‘樂土’·‘福地’ 등의 다양한 것으로 성립되고 있으나 현세에서의 물질성 추구하고 생활의 안락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비해 <갑민가>와 <복시곡>에서의 유토피아는 이러한 전통의 유토피아와는 다른, 유민에게 허여된 하나의 선택된 공간일 뿐이다.

<갑민가>에서 갑산민이 고향을 떠나 옮겨가고자 한 공간 북청은 실제로 함경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보다도 그 輪郭이 잘 짜여진 곳이다. 그리고 남대천 하류의 북청평야는 함경도 내에서 농산물이 풍부하기로 손꼽히며, 신포읍·신창읍 등은 바다에 접하고 있으므로 어업생산량도 많았다. 특히 신포·마양도 부근은 세계적인 명태어장이다. 또한 이곡면 고진동에는 대규모의 철광석으로 유명한 북청광산이 있었다.¹⁴⁾ 구강도 <복시곡>에서 “북청이 대도회라 관수도 웅장하다 / 빅물이 가자시니 사름살만 흐뭇더라 / 군물 성첩 완고하니 남병스의 잇는 데라”(196)고 하여, 북청이 살기 좋은 고장임을 밝히고 있다.¹⁵⁾ 더욱이 구홀을 잘하여 조정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바 있는¹⁶⁾ 성대중이

12) 이처럼 유토피아는 긍정적 뜻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는 곳’으로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오직 이상사회를 표상하는 까닭에 당위의 세계이며 현실에 대한 제도적 비판과 개혁을 위한 제안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규범적 세계로 이해되어야 하지 정략적 차원에서 폄하되고 배척될 대상이 아닌 것이다(金榮漢,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思想』, 探求堂, 1988, 13~21쪽 참조;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 『韓國文學論叢』 제21집, 韓國文學會, 1997, 236쪽 참조).

13) Thierry Paquot, *L'utopie ou l'idéal piégé*/조성애 옮김, 『유토피아-폭탄이 장치된 이상향』, 동문선, 2002, 7쪽.

14) 咸鏡南道誌增補編纂委員會, 『咸鏡南道誌(增補版)』, 藥業新聞, 1988, 900~910쪽 참조.

15) 북청 各社의 지세와 연혁을 골자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임을 읊은 이른바 「北靑 19社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三角山下都護府 萬古烈士老德社 ②官衙門前五十里 日出落陽良家社 ③龜尾繁洞泥望只 風吹羅臺德城社 ④三大嶺下九大川 別有天地星堡社 ⑤桃花臺上十五里 漸入佳境泥谷社 ⑥避日峰下萬景臺 君

<갑민가>가 창작된 1792년에 북청부사로 재직하였다. 이같이 안정된 지리적·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기반이 튼실한 복지에다 선정을 하는 목민관이 존재하는 북청이야말로 유민들에게는 단순히 좋은 곳의 선택이 아니라 구원과 해방의 상징으로서 유토피아적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갑민가>에서 갑산민이 궁핍과 억압에 대한 극복의 대안으로서 제기한 북청은 선치자가 지배하는 '이상적인 고장'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갑산민은 북청이라는 실제 겪어보지 못한 이상적·관념적인 공간을 선택함으로써 관념적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구휼을 잘하여 조정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목민관이 북청을 다스렸다할지라도 수취제도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18·19세기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갑민가>는 제도적 수탈에 억압당하는 관북민의 형상을 통해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긴 하지만 현실비판이 체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술자의 이러한 의식은 현실과 직접 맞닥뜨려 싸움으로써 역사의 구체성을 획득해 나가기보다 '유망' 혹은 '탈현실'이라는 관념적 유토피아를 채택함으로써 당대의 현실을 소극적으로 그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군왕에 대한 지향, 즉 '선치자 출현'의 기대에서도 드러난다. "나라님의 알외즈니 九中

子所居車書社 ⑦雙駕嶺下御史臺 西而青山佳會社 ⑧唐隅文洞鍾古川 義皇民歎仁厚社 ⑨西大川邊十五里 一夜鍾聲鍾山社 ⑩左邊青龍右白虎 東西南北中山社 ⑪蓮湖古岩馬養島 萬頃蒼波新浦社 ⑫龍蓮厚湖太陽山 九龍爭珠陽化社 ⑬絃琴羅湖釣魚處 飯稻魚羹俗厚社 ⑭上下東臺梨花村 垂楊深處楊川社 ⑮藝園昇坪九里浦 太平氣象海晏社 ⑯齋愼古都千年國 以土爲城土城社 ⑰風塵是非不到處 山紫水明居山社 ⑱舞仙高峙驛路邊 水東水西平浦社 ⑲武陵桃源何處在 白雲深處安山社”(위의 책, 906쪽).

- 16) 正祖 8年 4月 30日(甲寅)에 (영남과 호남) 양남의 도신이 진홀을 마친 장계를 올리니, 하교하기를, “영남의 진홀을 마친 狀本이 도착하였는데, 비록 兩湖와畿甸, 關東 등 제도의 大賑과는 차이가 있으나 수령에게 論賞하는 한 조항을 전혀 논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또 사사ροι 진홀한 사람 역시 마땅히 포상해야 한다.” 하고는 이조판서·병조판서·진홀청 당사·비국의 유사 담당에게 명하여, 즉시 登對하여 품처하게 해서, 영남은 金海府使 金履禧에게 兒馬를 사급하고, 興海郡守 成大重은 陞敘하였다(『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天門 머러 잇고 / 堯舜 갖튼 우리 聖主 日月 갖터 밧그신들 / 불沾 聖化 이 극
邊의 覆盆下라 빗켄소나”(13)라는 구절에서 군왕에 대한 시각은 봉건적 절대
군주로서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군왕의 선정이 극변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복식곡>의 “불상하다 심복 빅성 왕성이 누천 나라 … 비읍나
니 쥬광하의 빅비하고 비읍느니 / 양춘이 포턱홀 제 음곡부허 몬져흐면 / 머다
머다 저 사롬들 거워 거워 도모흐리”(211)라는 구절에서도 서술자는 군왕을 향
하여 소원을 빌고 있지만 장진읍의 폐단을 시정해 주기에 너무나 멀고 깊은 곳
에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이는 군왕에 대한 기대치가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
지 않는데서 오는 갈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군왕에 대한 기대는 선치자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있다. 궁극적으로는 폐단정치를 하지 않는 선치자가 출현
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서술은 적극적인 현실대결의지보다는 갈등상황을 간
직한 채 그것을 감추고 조화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의 반영이라 하
겠다.

이상과 같이 <갑민가>와 <복식곡>처럼 18·19세기 민중들의 삶의 질곡
을 형상화한 <향산별곡> <합강정가> <거창가> 등 그 말미 부분에 군왕
을 거론하거나 선치자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독재와 질병이 없는 행복한 세
상을 꿈꾸는 민중이나 작가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근대문학으
로까지 변모·발전 가능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18·19세기 유민들은 ‘민이
자기 자기의 음식을 맛있게 여기고, 자신의 의복을 아름답게 여기며, 풍속에 안
주하여 생업을 즐기는’ 桃花源식 생활¹⁷⁾의 추구를 통하여 마음속으로 한줄기의
광명과 희망을 불태웠던 것이다. 이것은 곧 노동자·농민 등 민중의 마음속에
묻힌 불씨였으며, 이것이 일단 크고 작은 농민항쟁으로 당겨지면서 요원의 불
길이 되어 역사의 수레를 힘차게 전진시키는 추진력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유민들의 유토피아적 갈망은 현실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의 쟁취와 인간의 마찰
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적 투사라는 점에서 문학적·역사적 가치를 획득
하고 있다 하겠다.

17) 陳正炎·林其鏞 著/李成珪 譯,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1990, 84쪽.

2) 역사현실과 지식인의 유민 의식

농촌의 양극화 현상과 상품경제의 발전·소작농들의 拒納과 抗租운동·농민의 유망과 민란 등 18·19세기에 격화되었던 향촌사회의 위기는 향촌지식인들로부터 비판적이고 진보적 사고를 이끌어내었다. 나아가 그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그 현실을 수용하고 비판하며, 동시에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변혁적 민중지식인 집단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식인은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적 변혁적 사고가 가능하였지만, 생득적인 계층적 우월성이 보수성으로 작용하여 상층문화의 전통적 장르인 가사나 한시를 선택하여 그들의 公議를 구현하게 된다. 특히 농민에게로 시선을 전환하여 유민문제를 그 내용으로 하여 가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향촌민들과의 연대의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¹⁸⁾

유민문제를 다룬 가사는 사회적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당대의 사회 역사적 조건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의 현실을 문제삼아 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유민문제를 다룬 가사는 가사문학의 소재가 현실적 측면으로 확대되고, 일상적 경험의 세계로 개방되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는 조선후기 가사문학이 현실에 밀착된 장르로 변화되는 특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갑민가>와 <복식곡>에서 보았듯이 18·19세기 관북민의 일가족이 함께 짐을 지고 고향을 떠나 현실적으로 보다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정처없이 떠나는 모습은 조선후기 민중들에게 짐지워진 중압이다. 묻는 말에 겨우 겨우 대답하는 유민의 모습에서 삶의 참담한 현실이 확인된다. 특히 이 유민들의 생활터전이 어디에도 없었던 현실이 이들의 입을 무겁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유민문제의 심각성은 유민의 입장에서는 생존문제가 달린 중차대한 것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서는 재정의 안정적 수취에 파산을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이에 따라 지배계급은 제도적으로 유민을 안정시키려는 시책을 펼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정·애민이라는 관념상에서 이루어졌을 뿐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지극히 미온적이었다.

18) 高淳姬, 앞의 글(1990), 74~75쪽 참조.

- (13) 불상한다 심복 빅성 왕성이 누천 니라
 제 몸의 질통혼 일 아모리 잇전마는
 늬게 와서 할솔소니 형세가 홀 일 업다
 죽으라면 죽을 밧기 무슴 슈가 이슬소나
 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며 노치 아니흐니
 내로소니 츠마 가라 머물고 위로혼 말
 우리 주상 전하님이 너희 질고 녀너흐샤
 날 보너여 알나시니 내 가셔 알외려니
 죽지 말고 기다리라 덕택이 미츠리라
 비옵나니 주광하의 빅비호고 비옵느니
 양춘이 포퓷홀 제 음곡부허 몬져하면
 머다머다 저 사람들 거위 거위 도모호리 (211)

인용 (13)는 <복식곡>의 말미 부분으로 왕성에서 수천 리 떨어져,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력의 통제가 미치지 않은 곳에서 “제 몸의 질통혼 일”이 있어도 호소할 곳도 없이 그저 감내해야 되는 관북민들의 기막힌 생활 현실에 인정과 애민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¹⁹⁾ 봉건적인 절대 군주로서의 모습에는 변화가 없으며 궁벽한 음곡에 먼저 “양춘이 포퓷”하기를 기원하는 등 현실문제의 해결까지도 군왕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강은 군왕을 향하여 소원을 빌고는 있지만 관북지역의 모순에 찬 사회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기에는 군왕이 너무도 멀고 깊은 곳에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애민관념에 의한 유민의 포섭은 결국 지배계급에 의한 피지배계급의 포섭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민의 간고한 생활을 형상하면서 왕의 선처나 지방관의 선정에의 당부를 중시하는 경향이 유민문제를 다루는 가사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감민가>와 <복식곡>를 비롯한 유민을 형상화한 가사 창작자들은 당대 현실의 주인공들인 유민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기존 이념을 언어적으로 공식화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담론주체의 이같은 언어적 공식화는 기존이념의 재확인과 자기 위치의 고수에 다름 아니다. 유민문제를 다룬 가사가 향촌사회의 농민과 토지로부터 유리된 유민들의 이익을 일정 정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작가가 대부분 이들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소지

19) 이형대, 앞의 글, 254쪽.

주였기 때문이다. 즉 유민의 문제를 심각하게 파악한 것은 유망으로 인한 농업 생산력의 감소에 있었다. 그러나 이때 지식인들의 비판의 초점은 수취제도의 모순에 두고 있으며,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 또한 그러한 모순의 제거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인들의 이중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농민과 유민의 편에 서서 서술한 것은, 첫째는 수령권에 대항한다는 면에서 계급적 이익이 일치하였고, 둘째는 이들과 일체감을 형성하여 이를 慰撫하고 그에 따라 무너져 가는 향촌사회를 재건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배계층이 농민들에게 보인 횡포를 비판하지 않은 것은 계층적 시각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오는 한계가 아니라 바로 작가들의 의식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다.²⁰⁾ 또한 수령권에 대항한다는 면에서만 농민들의 입장을 지지하였던 지식인층은 물론 체제비판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이는 봉건체제 자체의 모순이나 제도의 잘못이 아니고 부정을 저지르는 몇몇 관료들의 타락으로 빚어지는 국부적 현상으로 인식할 뿐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보지 못하는 미래지향적인 현실인식의 결여라 하겠다.

4. 관북 체험의 서술방식과 가사문학사적 자리매김

조선조 전시기를 풍미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온 가사는 조선후기부터 상당한 질적인 변화를 보이며 다음 시기인 개화기까지 양산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것의 지속적 흐름과 새로이 변이되는 모습이 가사만큼 유별되는 장르도 드물다 하겠다. 가사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변모하면서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대화체의 도입과 함께 가사가 서사성을 띤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는 가사가 서정적 요소와 서사적 요소를 공유하는 복합적 장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요소가 더욱 극대화되어 서사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체 서술방식이 후기가사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기가사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대화의 교체가 일어나 작자와 작중 인물의 이중적 시점

20) 조세영,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150쪽.

이 나타나거나,²¹⁾ 작중 인물간의 극적 재현이 실현되더라도,²²⁾ 이들 화자와 청자는 작가로부터 완전히 객관화되지 못하고 대화적이며 허구적인 탈 또는 작가 자신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서사지향적 대화체의 후기가사는 이러한 서술 방식을 지양하고 두 사람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여 대화를 펼쳐 나감으로써 정보전달에 적합한 소재나 사건 등을 자유로이 끌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대화는 어법적으로 볼 때 현재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인물들의 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가사 중 대화체 형식으로 주목받는 작품 중의 하나인 <갑민가>는 문체상 구체적이고 생생한 일상어를 사용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가사에서 아주 드물게 보이는 3음보 율격이 2회 나타나는데, 모두 갑산민과 생원의 대화를 시작하는 도입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片句現象은 詩想의 전개를 용이하게 하고 대화체의 효과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갑산민의 현실적 모습을 더욱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예각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²³⁾ 즉 생원과 갑산민의 대화를 독자가 엿듣게 함으

21) <西湖別曲>의 경우 허구적 인물로 설정된 '羽衣道士'는 托情의 시적 기법에 의해 白鷗나 鶴을 의인화한 것으로 단지 화자의 대답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關東別曲>의 '꿈에 혼 사름'도 의문을 제기하고 몽중화자인 '나'에게 대답을 유도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화자와 상이한 경험을 가지고 자기재현을 피하는 서사적 인물이 아니라 작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며, 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2) <續美人曲>의 경우 작자가 모습을 감춘 채 작중인물인 두 여인의 대화에 의해 작품이 구성되므로 극적 장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乙女 의 사실에서 작자 자신의 진술을 볼 수 있으므로 작자와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작자의 주관이 여전히 개재하는 작자와 작품이 미분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작중인물인 두 여인도 대결·투쟁하는 극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제1화자인 甲女가 乙女 의 말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과 乙女 에게 동조·화합함으로써 하나의 지향점으로 통일시켜 작자의 심정을 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23) 가사문학에 나타나는 '片句現象'은 여러 한시의 형식 중에서도 자구나 운자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長短句 형식과 비슷하다. 이로 인해 리듬감이나 음악적인 특성을 분출시키는데 용이하고 가창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시조·민요 등 우리의 노래와 정서를 옮기는데 많은 장점과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진술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유망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현장은 관북지방에서의 유망행위에 대한 갈등상황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토의의 장’을 설정하여 작자가 의도하는 바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장치로 쓰여졌다. <갑민가>에서 먼저 말을 건네는 생원의 발언은 갑산민의 말을 유도해내는 역할을 한다.²⁴⁾ ‘유망하지 말라’는 생원의 입장에 대하여 갑산민은 ‘유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반박의 논리를 펴나간다.

<복식곡> 또한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체는 물론 일상어를 사용하여 사전현장이나 인물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삶의 터전인 고향을 상실하고 지향없이 떠돌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여, 자신의 갈기갈기 찢어진 삶에 눈물 흘리며, 허기짐과 쇠진한 기력으로 인해 잊어지기도 하는 구체적인 인물을 찢진하게 그려낸 다음, 유민과의 대화를 통해 유망의 원인을 압축적·객관적으로 끌어내고 있다.²⁵⁾ 서술자는 먼저 유민이 살아왔던 고을의 원님에게 부탁하여 다시 친절하게 해주겠다는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굶고 맛고 죽을 디경 / 출하리 구렁의나 녀녀 업시 못치이면 / 도로혀 편”(168)하다는 유민의 답변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삶의 근본조건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광범하게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그 정도의 처방으로는 통용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음을 설명함으로써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대화체 서술방식의 서사화 지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물이다. 이는 등장인물이 인격화됨으로써 서사적 산문의 기본원리인 작가와 등장인물간의 대화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기가사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전기가사의 경우 인물이 등장하지 않거나 혹은 대화체에서 등장한다 해도 일정한 성격을 지니지 않고 ‘나’라는 주관적 인물과 ‘너’라는 대칭적 인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즉 작자 자신인 ‘나’와 ‘그’의 상상력의 산물인 등장인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인물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전기가사의 대화체 양식에서는 등장인물이 작가와 다른 상이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

24) 高淳姬, 앞의 글(1990), 54쪽.

25) 이형대, 앞의 글, 249쪽.

라기보다는 작가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인물간의 갈등이 없고 또 세계관이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시대는 보편 타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바, 조선전기에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의 강한 교조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 내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은 작가에 귀속되어 그의 심회를 표출하기 위한 중계자나 옹호자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형식적인 기능만을 하는 등장인물에서는 어떠한 개성이나 인격도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민가>와 <복식곡>의 등장인물은 작가의 영역과는 상관없이 체험을 바탕에 둔 자신들만의 독자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되는 자신들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대화는 보편 타당한 세계로부터 나온 한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 논쟁하는 이질적인 세계로부터 나오는 여러 목소리들의 화음인 것이다.²⁶⁾ 따라서 등장인물은 이미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들만의 독특한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네' '즈니' '그디' 등 상대방을 지칭하는 대명사의 사용은 작가와 등장인물, 등장인물간의 거리가 뚜렷이 내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대명사의 선택은 등장인물이 서술자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이 작가의 체험 속으로 완전히 용해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겠다.²⁷⁾ 대명사의 등장은 나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또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와는 다른 또 하나의 '나'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때의 인물은 작가에 대하여 대등한 또 하나의 '나'를 의미한다. 대명사의 사용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작가가 그의 등장인물이 그의 외부에 있을 때에만 그 등장인물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등장인물의 인격화는 작가의 삶과 비슷한 또 한 사람의 작가라는 숫자적 반복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전기가사의 등장인물이 작가인 나의 삶에 공감하는 단순한 숫자적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등장인물의 인격화는 나의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삶이 가치화되고 정당화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치화된 등장인물은 그 자신의 독립성

26) M.Bakhtin, Discourse in the Novel, *The Dialogic Imagination*/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71~73쪽 참조.

27) 宋起漢, 『開化期 對話體 歌辭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 58쪽.

과 내적 자유, 비종결성, 비확정성을 확립하는 것이며,²⁸⁾ 작가의 심회를 풀기 위해 끌어들이는 형식적 인물과는 다른 것이다. 이처럼 <갑민가>와 <복시곡>은 작가와 등장인물, 등장인물간의 대화적 관계는 작중인물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할 뿐만 아니라 서사화한다 하겠다.

이와 같이 대화체를 도입하여 사실성을 확보하고 등장인물을 인격화하여 역동적 현장감을 형상화하고 있는 <갑민가>와 <복시곡>의 특징은 曹友仁(1561~1625)의 <出塞曲>(1617)이나, 宋疇錫(1650~1692)의 <北關曲>(1675), 李匡明(1701~1778)의 <北窺歌>(1755), 李溶의 <北征歌>(1776) 등 유배를 가거나 관리로 부임하여 북변의 경물과 풍속을 평면적 사실보고적으로 짧게 진술한 이들 작품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면모이다. 이는 중세봉건 사회의 해체와 새로운 질서로의 이행이라는 맞물림 속에서 사회 역사의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부각된 유민문제를 가사문학으로 변용하여 19세기 가사문학의 지평을 확대하였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5. 마무리

이 글은 18·19세기 관북민의 삶에 대해서 <갑민가>와 <복시곡>을 중심으로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마무리로 삼고자 한다.

첫째, 관북민들에게 현실 생활을 고단하게 하는 일차적 요인은 척박한 지리적 환경이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수취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최소한의 생존여건마저 박탈당한 절박한 삶의 실상이 놓여있다. 이러한 집권층에 의한 수탈의 잔혹성과 수취제도의 문란상은 어느 한 개인이 당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불행이 아니라 관북민 전체에게 작용한 엄청난 질곡이었으며, 이는 당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었던 갈등상황이며 일정한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최소한의 생존 여건마저 박탈당한 채 절대 빈곤을 견디다 못해 유망의

28) Todorov, T., Qu'est-ce que le structuralism? - Poétique/郭光秀 譯, 『構造詩學』, 문학과 지상사, 1977, 126쪽.

길을 나선 관북민이 선택한 공간은 경제적 기반이 튼실한 복지이다 선정을 하는 목민관이 존재하는 곳이지만 실제 경험하지 못한 이상적·관념적 공간이다. 이는 작가가 현실과 직접 맞닥뜨려 싸움으로써 역사의 구체성을 획득해 나가 기보다, '유망' 혹은 '탈현실'이라는 관념적 유토피아를 채택함으로써 당대 현실의 소극적 형상화에 기인하고 있었다. 또한 작가는 유민의 간고한 생활을 형상 하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왕의 선처나 지방관에 대한 당부를 중시하는 인정과 애민이라는 관념에 의해 유민문제를 해결하려 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셋째, <갑민가>와 <복시곡>은 전기가사에 나타나는 서정적 교술시 일반의 서술방식을 지양하고 두 사람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여 대화를 펼쳐 나가으로써 정보전달에 적합한 소재나 사건 등을 자유로이 끌어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대화는 어법적으로 볼 때 현재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인물들의 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또한 '네' '즈니' '그디' 등의 대명사 사용으로 인격화된 등장인물은 작가의 심회를 풀기 위해 끌어들이는 형식적 인물과 달리 체험을 바탕에 둔 자신들만의 독자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작품의 서사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갑민가>와 <복시곡>을 중심으로 18·19세기 관북민들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글은 같은 시대 한시 등 다른 문학 장르에 나타난 관북민의 삶에 대한 표현 양상이나 서술방식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아울러 살피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유민문제를 다룬 가사문학 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후속 논문에 상당부분을 미루기로 한다.

주제어: 관북민, 군정, 대화체, 서사성, 선처자 출현, 수취제도, 유망, 유민, 유토피아, 환곡

참고문헌

- 『市南集』, 『耳溪集』,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 姜銓燮, 「南湖 具康의 北塞曲에 대하여」, 『韓國學報』 제69집, 1992년 겨울호.
- 高淳姬, 「19세기 현실비판가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 고순희, 「甲民歌의 작가의식-대화체와 생애수용의 의미를 중심으로」, 『梨花語文論集』 제10집, 1988.
-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시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 『韓國文學論叢』 제21집, 韓國文學會, 1997.
- 金文基, 『庶民歌辭研究』, 螢雪出版社, 1983.
- 金榮漢,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思想』, 探求堂, 1988.
- 金墉鑽, 「甲民歌의 主題에 대한 再檢討」, 『어문논집』 제33집,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4.
- 김일렬, 「甲民歌의 성격과 가치」,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 망원한국사연구원 19세기 농민항쟁분과, 『1862년 농민항쟁』, 동녘, 1988.
- 朴堯順, 『韓國古典文學 新資料 研究』, 漢南大出版部, 1992.
- 徐奉植, 「北塞曲」, 『鄉土研究』 제10집, 忠南鄉土研究會, 1991.
- 宋起漢, 「開化期 對話體 歌辭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
- 李東燦, 「朝鮮後期 歌辭에 나타난 收奪 現實의 告發과 變革意志」, 『國學論叢』 제6집, 경산대 국학연구원, 2001.
- 李相寶 校註, 「甲民歌」, 『現代文學』 143, 1966년 11월호.
- 李重煥 著/李翼成 譯, 『擇里志』, 乙酉文化社, 1971.
- 이형대, 「北塞曲의 표현방식과 작품세계」,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 林基中 編, 『歷代歌辭文學全集』 6, 東西文化社, 1987.
- 조세영,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 陳正炎·林其鎔 著/李成珪 譯,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1990.
- 崔康賢, 「기행가사 北塞曲을 살핌」, 『근재양순필박사화갑기념 어문학논총』, 학문사, 1993.

咸鏡南道誌增補編纂委員會, 『咸鏡南道誌(增補版)』, 樂業新聞, 1988.

M.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Thierry Paquot, *L'utopie ou l'idéal piégé*/조성애 옮김, 『유토피아-폭탄이 장치된 이상향』, 동문선, 2002.

Todorov.T., *Qu'est-ce que le structuralism? -Poétique*/郭光秀 譯, 『構造詩學』, 문학과 지성사, 1977.

<Abstract>

The Life style of People living in Gwan-Buk
(關北) area represented in Gasa(18~19C)
-through <Gapminga(甲民歌)> and <Buksekok(북시곡)>-

Yi, Dong-Chan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life style of people living in Gwan-Buk area. They were living in the frontier defence and suffered from the bad chief of Gwan-Buk area. So they lived in destitution. And they left either Gwan-Buk area for another area that was governed by the good chief or they meandered another place. In this time, <Gapminga> and <Buksekok> represented the life style of people in Gwan-Buk area.

First, <Gapminga> represened the life style of people at Gap-San(甲山) in Gwan-Buk area. They left for Buk-Chung(北靑), because they thought It was governed by the good chief and was a utopia. But It is just ideal place in their mind. <Gapminga> negatively represented the situation through their thought of ideal place at that time. It was also represented in < Buksegok> that expressed to expect appearance of a hero. Both are express the intention of not resistance but harmony.

Second, Both attended to government by the good King or the good chief more than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wandering life at that time.

Third, the communicative relation author with character and the communicative relation with characters represented not only in plural dimensions but also in narrative.

As above, To represent wandering life has a literary and historical value, expands the horizon of Gasa literature, and makes possible to grow up as modern literature.